

행정 엇박자에...수능생 점심 제공 무산

순천시 예산 반영해 놓고도
뒤늦게 교육청에 협조 공문

준비 제대로 안돼 불발

첫 제안 이영란 시의원

“행정 편의주의 발상” 비판

순천지역의 수능 수험생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점심 급식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의 준비소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순천시 수능시험장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20학년도 대학수능시험 급식지원협의 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재의 수험장 급식실의 좌석 부족과 민원발생 소지 등 이유로 급식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앞서 지난 4월 순천지역 교장단 간담회에서 순천시에 수능 점심 지원예산을 요청했고 다음달인 5월 이영란 순천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능시험 당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순천시는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에 반영했고, 수능 당일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순천시의 급식 제공 계획은 순천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순천교육지원청은 수능 점심지원 관련 예산 지원을 순천시에 요구하지 않았고, 순천시도 단순한 예산지원이란 점에서 교육지원청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엇박자’를 내고 말았다.

이후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수능일 점심 지원문제를 순천시에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시는 지난 9월 27일에야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부랴부랴 수능시험장을

제공하는 학교의 급식실 상황 등 급식 여건을 점검한 결과 좌석수가 수험생 수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있고, 50분밖에 되지 않는 식사시간의 한계, 조리원들의 근무 등 세부적인 문제가 많음을 파악하고 결국 ‘급식제공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영란 순천시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몇몇 학교장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결정은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순천시와 교육청이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급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양 기관을 비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공식 출범

50명 본격 활동 나서

순천시민들로 구성된 인구정책 발굴단이 공식 출범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이들은 시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워크숍은 참여단 위촉장 전달과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수석연구원은 특강을 통해 정부정책과 순천 인구구조 변화, 자치단체들의 인구정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동·청년·여성·중장년 4개 분과로 구

성된 시민참여단은 토론회를 통해 분과별 SNS 소통 공간 마련, 인구정책 성공사례 공유 및 연구를 위한 스터디그룹 운영, 인구 증가와 감소 지역 현장 방문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구정책의 핵심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주 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참여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대비 2145명 증가한 28만 1534명으로 인구수 전남 제1의 도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정원 나눔숲서 ‘아이나무 심기’ 행사

88 가족 350여명 참여

순천시는 지난 2일 순천만국가정원 나눔숲에서 ‘아이나무 심기’ 행사(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88가족 350여명이 참여한 행사는 사랑스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장차 나라의 큰 인재로 성장하라는 가족 모두의 기원을 담은 의미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 가족 모집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 인천, 울산 등지에서도 17가족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 중에는 아이와 부모, 조부모

등 3대 가정과 아이의 탄생을 소망하는 부부의 간절한 마음, 올해 탄생한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등심은 나무 표찰에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글귀를 새겨 가족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아이나무 심기 행사 참여 가족들에게 정원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숲 정원 조성을 통해 국가정원 내 또 하나의 테마숲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오늘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 ...미래산업 방향 제시

‘E4 시티’ 도약 비전 선포도

순천시가 7일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을 개최해 미래 순천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예정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순천상공회의소, 광주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정부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맞는 순천시의 미래산업 방향을 정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카이스트 K-industry 4.0 추진본부의 김홍남 교수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시는 심포지엄을 통해 시가 보유한 교육(Education), 생태(Ecology), 경제(Economy)의 3E 자원과 4차산업혁명을 융합해 ‘E4 시티(이포 시티)’로 도약하는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비전 선포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3인의 순천시장이 동시에 등장하고 시장이 직접 포부를 밝히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교육계와 산업계가 순천형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순천상공회의소가 역량을 모아 교육과 산업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장인 김홍남 교수는 ‘제조업과 ICT 융합을 위한 4차산업혁명 전략’에 관한 기초연설을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무인이동체산업단) 강왕구 단장이 ‘스마트E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VR·AR 콘텐츠

산업본부) 최연철 본부장은 ‘5G 이후 시대의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순천대 허희옥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변화’를, 전남대학교 이철우 교수는 ‘인공지능과 미래 콘텐츠’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이 지난달 25일 발표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 후,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정부 방향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순천시와 각 분야 전문가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분야별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나눈 것으로 시 정책이 관련 업계와도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낙안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
순천시, 주민투표로 결정기로

순천시는 주민 간 다른 의견이 나오는 낙안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열린 낙안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론회에 허석 순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투표를 제안해 주민 동의를 끌어냈다.

총사업비 38억원 규모인 낙안 종합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순천시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낙안 종합복지센터 위치, 부지 매입 방식 등과 관련해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2~3개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주민투표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특혜 의혹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 집단 민원 제기할 듯

순천 해룡선월농공단지 조성업체 특혜 의혹(광주일보 11월1일자 1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이 시행업체의 크래셔(돌을 깨는 장비) 설치와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농공단지 시행업체인 (주)금원은 지난달 22일 조성 현장에 크래셔를 설치하기 위해 시에 토석채취 변경허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업체는 공사기간인 30개월을 이행하지 못하고 공정률은 30%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지난 7월 1년6개월의 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근 주민과 관련 업체는 시공업체가 농공단지 조성 보다는 토석과 원석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농공단지가 농경지 주변에 조성되는게 일반적이지만 해룡선월농공단지

는 이례적으로 임야에 조성되고 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임야를 파 채취한 토석을 팔거나 복토로 사용하는 구조인 것이다.

또 업체가 토석을 처리하기 위해 최근 파쇄기를 도입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공단 조성보다는 토석 채취 사업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원석 판매에만 치중해 공사기간을 지연해 놓고 이제 와 크래셔를 설치해 골재를 판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소음과 분진피해도 심해 민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 임동호 도시개발팀장은 “1년6개월의 기한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계획도 받았고 기한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와 원상 복구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